



한국종교 제28집

ISSN : 1738-3617(Print)

濟州地域의 宗教文化

조성윤

To cite this article : 조성윤 (2004) 濟州地域의 宗教文化, 한국종교, 28, 237-263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濟州地域의 宗教文化

조 성 윤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장 · 사회학)

【주제분류】 종교문화

【주 요 어】 지식정보, 콘텐츠, 디지털, 문화원형, 문화산업

【요 약 문】

조선시대까지 제주지역은 샤마니즘의 영향이 절대적인 곳이었다.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당에 의존하였다.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한 곳에 정착하면 마을 수호신을 받드는 堂을 모셨다. 자연 재해를 막고 생업 활동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당을 찾았고, 漢拏山神에게 빌었다. 반면 유교문화는 그리 깊이 침투하지 못해 육지 다른 지방들에 비하면 훨씬 약했다.

그러나 개항 이후에는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여러 외래 종교들이 속속 제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거의 사라졌던 불교가 다시 포교되고, 증산교를 비롯한 각종 신종교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한말에는 천주교가 이재수난을 겪으면서 중요한 계기를 형성하였고, 일제 침략기에 신종교 중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을 보인 것은 증산교 계열의 종교들이었다.

1945년 이후 제주도에서는 육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불교, 천주교, 개신교가 가장 많은 신도를 확보한 종교가 된다. 그 중에서도 불교가 가장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불교 중에서도 주민들의 종교 심성과 가깝고 민간신앙의 각종 의례를 적극 수용하는 태고종 계열의 사찰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주민들은 별다른 마찰 없이 불교로 편입되고 있는데, 당분간 조계종보다는 태고종이 계속 신도들을 확보하리라 예상된다. 한편 개신교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천주교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 역시 민간신앙, 또는 제사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훨씬 높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도의 민간신앙의 뿌리는 근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서서히 약화되는 것으로 흔히 설명되어 왔지만, 최근의 경향은 약화, 소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근대사회의 제도적 틀 속에 융해되고, 때로는 새로운 옷을 입으며 재편성되면서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목 차 -

I. 머리말

II. 조선사회의 종교문화

III. 한말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 변동

IV. 제주도의 신종교와 민간신앙

V. 맺는 말

I. 머리말

지역별로 종교문화의 특성을 살피는 작업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그중 가장 먼저 부딪치는 것은 한국문화의 전반적인 특성 속에서 어떻게 지역의 특수성을 가려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역 문화는 가끔 주문화(mail culture)를 벗어나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주문화의 변형에 그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제주지역 역시 한국 사회의 일부분이므로, 제주지역의 종교 문화 역시 한국 종교문화 전반을 설명하면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제주지역 주민들은 교통 통신 조건이 좋지 않았던 오랜 기간 동안 타 지역과는 달리 고립된 섬이라는 조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육지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종교문화가 형성되었을 수 있다. 제주지역의 종교문화를 설명하려면 한국문화의 하위문화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도 우선 섬이라는 조건 때문에 형성된 지리적 변수로부터 출발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¹⁾

제주도에서 태어나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농민들은 평생을 두고 섬 밖으로 나가볼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어업에 종사할 경우는 배를 타고 나가기는 하지만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갖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실시된 出陸禁止 令은 조선후기 내내 제주도 사람들을 섬 안에 묶어 놓고 말았다. 외부 사회와의 문화적 접촉이 거의 차단되었기 때문에 제주도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제주도를 완결된 생활 공간으로 보고 살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럴 때 그런 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관념 역시 섬 내부에서의 생활을 완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속에서 살아왔다. 더구나 제주도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상당한 면적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자족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문화 형성에 미치는 환경 조건의 영향도 훨씬 직접적이었을 것이다.²⁾

이러한 상황이 바뀌어 외부와의 접촉면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외부 종교가 들어와 제주 사회에 퍼지게 된 것은 1876년 개항 이후이다. 오늘날 제주도의 주요 종교가 된 천주교와 개신교는 물론 불교 역시 오래 동안의 단절을 넘어서서 이 시기부터 다시 포교되기 시작하였다.

-
- 1) 이창기는 제주문화를 파악하는 관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제주도를 하나의 완결된 생활공동체로 보고, 제주문화를 독자적인 하나의 문화체계로 간주하는 입장, 2) 제주도를 한반도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제주문화를 한국문화의 하위체계로 파악하는 입장, 3) 제주도가 한반도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일본, 오키나와, 동남아, 중국과의 폭넓은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 관점의 상호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이창기,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환경:挑戰·適應·超越의 메카니즘』, 『濟州島研究』 9집, 1992, 17-19쪽.
 - 2) 이창기, 앞 글, 23쪽.

따라서 오늘날 제주 사회의 종교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항 이전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일제 침략기와 해방 이후의 외부로부터 유입된 종교의 특성을 설명하는 형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II. 조선사회의 종교문화

탐라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제주도 주민들의 정신 세계는 무교 신앙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각종 邑誌와 제주도를 방문했던 유학자들이 기록한 문집을 보면, 한결같이 제주도 주민들의 특징으로 “淫祠를 숭상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정익의 『冲庵集』 「제주풍토록」에 “사당의 귀신을 지독하게 숭상하며, 남자 무당(男巫)이 매우 많다. 재앙과 불행한 일이 닥치면 사람들을 위협하여 재물을 마구 빼앗는다. 제주 지방의 명절 · 초하루와 보름, 7일 · 17일 · 27일과 같은 三七日에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 희생으로 삼아 신당에서 제사를 지낸다. 음식은 300개를 넘는데도 점점 증가하며, 요사스러움과 거짓이 날로 높아간다. 사람이 병이 걸려 심해져도 약 먹기를 두려워하며, 귀신이 화를 낸다고 하면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깨닫지 못한다. 풍속에 뱀을 몹시 꺼리며, 신으로 모신다. 보았을 경우에는 술을 뿌리고 주문을 외우지만, 감히 잡아죽이지 못한다.”³⁾고 하였다.

유학자 충암의 눈에 비친 제주도민의 무교 신앙은 숙종 때 이형상

3) 金淨, 『濟州風土錄』,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8-9쪽.

이 “집집마다 신위를 모시고 곳곳에 당집을 지어 신을 모시는 버릇이 내륙 지방에 비해 백배나 됩니다”라고 지적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서울을 비롯한 육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도 훨씬 강력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당의 귀신을 지독하게 숭상한다’는 심한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다. 여기서 사당의 귀신이란 신앙 대상인 각종 신을 사당에 모셔 놓은 것을 가리킨다. “산과 숲, 내와 못, 높은 언덕이나 낮은 언덕, 나무와 돌 따위를 모두 신으로 섬겨 제사를 베풀다.”⁴⁾고 했고, 뱀을 중요한 신앙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흔히 학자들이 이러한 신앙을 자연숭배 또는 정령숭배(Animism)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민들이 나무나 돌 같은 자연 그 자체를 곧 신이라고 본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거룩한 존재인 신을 느끼고 경외심을 표현하고 의지했던 것이다.

특히 한라산과 바다는 제주도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므로, 제주도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대상은 한라산신과 바다의 龍王이었다.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는 鮑作人과 해녀(潛嫂)들은 용왕과 바람신(燃燈神)에게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치고 굿을 하였다. “배를 띄울 때는 귀신의 재앙이 있음만 알지, 관가의 명령이 있음은 알지 못하며, 進上船이 바람을 기다릴 때도 반드시 신당에 하직 인사”⁵⁾하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유명한 『漂海錄』의 저자 崔傳가 바다에 표류한 이유를 제주도 뱃사람들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은 탓’이라고 말하곤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려 할 때는 언제나 신에게 물어 보려 하였다. 때문에 선조 때 왔던 김상헌은 “廣禳堂과

4) 李元鎮, 『譯註 耽羅志』, 푸른역사, 2002.

5) 李衡祥, 『南宦博物』

遮歸堂 등의 음사에서는 피리와 장고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토착민들은 (신을) 하늘처럼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대체로 한 집의 크고 작은 일들을 반드시 먼저 이곳에 와서 기도한 다음에야 시행한다.”고 말하였다. “봄·가을로 남녀가 광양당과 차귀당에 무리로 모여 술과 고기를 갖추어서 신에게 제사한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두 당은 제주도내 300개가 넘는 신당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곳이었다

무교의 성직자 역할은 무당이 담당하였다. 제주도 무당은 흔히 ‘심방’이라고 부르는데, 여자도 있었지만, 대개 남자였다. 이들은 인간과 신을 매개하는 존재로 이른바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었다. 잠시 제주도를 방문했던 유학자들이 볼 때 제주 무당들은 “잘난 체하고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물론 이들은 공권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만, 적어도 일반 주민들에게는 정신세계의 지배자였다. 다른 지방,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무당이 심한 탄압을 받아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권은 물론 양반 관료들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을 것이다. 제주 무당의 모습은 이와는 대조적이었고, 그런 무당의 태도가 유학자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태도는 민중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권위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무당들은 그들끼리 契 조직을 결성하고 있었는데, 천명이 넘는다고 할 정도로 숫자도 많았다. 그리고 이들은 향리 조직과도 일정한 연대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헌종 7(1841)년 李源祚 목사가 「입춘굿」 기록을 보면, 이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던 농경의례를 향리 집단이 주관하고 있었으며, 의례 행렬의 맨 앞에는 무당들이 나서 전체를 이끌었다고 한다. 향리들이 주관하고 무당이 의례를 이끄는 이 행사는 당시 제주성안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지방관으로 부임해 왔던 목사, 판관, 현감들도 무교 신앙을 대단

히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무당들의 조직은 쉽게 깨뜨리기 어려운 형세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교와 민중 종교의 대립 과정을 보게 된다. 향촌 지배 세력이 한편 유교를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들의 동향, 즉 무교를 중심으로 편성된 제주도민들의 종교적 관행을 무시하고 억압하기는 어려운 이중적인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목사들 역시 제주도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무당 세력과의 정면 대결을 피해온 것이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토착 지배 세력들, 특히 유생들 역시 비록 그들이 지배 세력의 일원이었지만 무당 세력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정부는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는 제주도 주민들에 대한 지배를 확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탐라국의 자취는 거의 사라져 버렸다. 한편 향교를 세우고 각종 유교식 제사를 실시하는 한편, 烈女와 孝子·孝女·孝婦를 표창하면서 유교 윤리를 제주도민들의 정신 속에 심으려는 노력을 줄기차게 펼쳤지만,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해방 이후 무교 신앙은 탄압이 계속되자 크게 위축되었다. 그렇지만 조선말기부터 유교식 조상 제사가 널리 보급되어 오늘날에 이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전제, 조왕신에 대한 제사 등 무교 신앙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혼합되어 있음을 보게된다. 그리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점복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다는가 기독교를 비롯한 외래 종교가 뿌리내리기 어렵다는가 하는 점에서 아직도 제주도민들의 심성 속에는 무교 신앙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무당들이 당신들의 내력을 읊는 본풀이 속에는 제주도민들이 오래 동안 간직해 온 신화들이 담겨 있으며, 아직도 무당들의 곁에서 제주민들의 독특한

춤과 노래의 원형을 만날 수 있다.

정리해 보면 조선시대까지 제주지역은 샤머니즘의 영향이 절대적인 곳이었다.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당에 의존하였다. 자연 재해를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업 활동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당을 찾았고, 漢拏山神에게 빌었다.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한 곳에 정착하면 마을 수호신을 받드는 堂을 모셨다.

반면 유교문화는 그리 깊이 침투하지 못했다. 조선왕조가 유교를 바탕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교 정치를 펴 나갔다.⁶⁾ 그러나 당시 제주도 주민의 의식을 지배하던 신앙은 巫敎였다. 국가가 향교를 설치하고, 경서를 보급하고, 과거를 장려하면서 유교 이념의 보급에 힘쓰고 있었지만, 육지 다른 지방들에 비하면 훨씬 약했고, 양반 관료로의 진출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던 토착 지배 세력들은 유교 이념 학습에 열을 올리지 않았다.⁷⁾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의 무교 신앙이 좀처럼 바뀌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다.

물론 유교국가는 지속적으로 유교적 지배질서를 확립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한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였다. 조선후기 들어서 특히 1700년경 목사로 부임했던 이형상은 신당을 파괴하고 무당 활동을 중지시킨 인물로 유명한데, 그가 판단하기에 제주도 주민들의 정신 세계는 무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제주도 주민들은 각 마을에는 물론이고 “산의 숲이나 하천·연못·언덕·평지의 나무와 돌에도 모두 신사를 세우고” 치성을 드렸다. 각 마을 주민들이 모시는 신당은 숲, 하천·연못·언덕·평지의 나무와 돌이 한 데 모인 곳 등에 자리잡고 있었

6) 조성윤, 「정치와 종교: 조선시대의 유교 의례」, 『사회와 역사』 53호, 한국사회사학회, 1998.

7) 조성윤, 「조선후기 제주도 지방의 신분 구조」, 『한국의 전통 사회와 신분 구조-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27집』, 문학과지성사, 189-192쪽.

다. 이것은 주민들이 이러한 지역을 다른 일상적인 삶의 영역과는 구분되는 신성한 자리로 여기는 곳이었다⁸⁾. 또한 “배를 띄울 때는 귀신의 재앙이 있음만 알지, 관가의 명령이 있음은 알지 못하며, 진상선이 바람을 기다릴 때도 반드시 신당에 하직 인사를” 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⁹⁾고 지적하였듯이, 농사, 수렵은 물론 잡녀들과 어부들의 바다 활동은 역시 무교 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는 “무격배들의 속이는 습속은 천하 만고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고질적인 폐단임은 말해보아야 무익합니다. 이 섬에 이르면 더욱 특별합니다. 이미 위아래 명분도 없고 의리도 알지 못합니다. 집집마다 位를 세우고 곳곳에 祠를 세워 崇奉하는 버릇이 내륙 지방에 비해 백배나 됩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았으며, 특히 무 신앙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무격들의 위세를 꺾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았다. 그는 당을 부수고 불태우면서, 유교식 제사를 정비하여 유교 지배 질서를 수립하려 했지만, 그가 떠나자마자 원상태로 회복되었다. 물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서서히 유교 문화가 정착하게 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위로부터의 문화의 옷을 입히는 작업이지, 주민들 심성 밑바닥까지 들어가지는 못하였다.¹⁰⁾ 주민들은 대체로 당신앙을 기본으로 삼아 지내고 있었고, 그러한 기본 경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8) 文武秉은 堂은 堂神이 卜地한 神聖處이며, 당을 설치한 마을 사람들의 성역관념이 작용하는 곳이며, 당이 있는 곳은 과거 마을이 설촌되면서부터 성소로서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지속시켜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보았다. 文武秉, 『濟州島 堂信仰 研究』,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19쪽

9) 李衡祥, 『南宦博物』

10) 조성윤 · 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탐라문화』 19집, 1998.

III. 한말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 변동

오래 동안 제주 사회의 종교 문화는 상층부는 유교, 하층부는 무교로 이루어져 있었다. 불교는 고려말기와 조선 전기에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지만, 조선후기에 들어오면 대부분의 사찰이 폐허로 변하고,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에는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여러 외래 종교들이 속속 한국 사회에 들어와 포교를 하게 되면서, 그 흐름이 제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거의 사라졌던 불교가 다시 포교되고, 증산교를 비롯한 각종 신종교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유입된 종교는 천주교였다. 강제 합병 직전인 1898년부터 유입된 천주교는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성장세를 이루다가 1901년 이재수난을 겪으면서 제주도민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게 된다. 제주도에 들어온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는 새로운 종교인 천주교는 초기부터 신당을 파괴하고 조상 제사를 우상숭배로 몰아붙이면서 민간신앙과 유교를 강하게 공격했는데, 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 유림 세력과 민중들이 힘을 합쳐 천주교도들을 몰아 내려 했다. 천주교 신자들과 제주도 농민군들 사이에 빚어진 큰 충돌로, 때문에 천주교 신자 수백명이 살해당한 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¹¹⁾ 천주교는 조선에 들어와 한동안 포교가 이루어지다가 제사문제를 계기로 심한 탄압을 받았는데, 개항이 되면서 프랑스를 배경으로 다시 들어왔었다. 천주교는 1899년부터 제주도에 포교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종교적

11)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朴贊殖(1995), 「韓末 天主教會와 鄉村社會-「教案」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측면에서 볼 때는 지배층의 유교와 민중의 무교로 이루어진 조선의 종교적 세계관에 대한 서구 종교인 천주교의 도전이었다.

당시 천주교 신부들은 제주도민들에게 巫敎 신앙과 심방(제주도에서 무당을 일컫는 용어이다)이 주도하는 곳은 마귀에 붙잡혀 있는 것이고, 양반 유림들이 행하는 조상제사 역시 귀신을 모시는 행위라고 가르쳤다. 따라서 천주교 신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이상 무당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제사도 모시지 않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미 19세기 초부터 제사문제는 조선사회에서의 천주교 포교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던 중요한 문제였으며, 그 때문에 충돌이 빚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예민한 문제였다.¹²⁾ 당시 천주교 신부들의 태도는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전래 초기에 활동하던 신부들의 태도와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한말의 천주교는 처음부터 권력을 배경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¹³⁾ 이러한 상황은 초기 제주도 선교 과정에서도 그대로 관철되었다. 지방관은 그들의 활동을 저지할 능력을 상실했고, 한편 선교사는 이러한 유리한 정치적 지위를 적극 활용해 신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제주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투어 천주교 신자가 되려 하였다.¹⁴⁾ 갑자기 신자가 증가하는 천주교를 지켜보는 일반 민중들은 물론 지배층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양반 유림들도 선교사들과 천주교 신도들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12)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盧吉明(1988), 『가톨릭과 朝鮮後期社會變動』,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趙 珖(1988), 『朝鮮後期 天主教史 研究』,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3) 姜昌一, 「1901年の 濟州島民 抗爭에 대하여-韓末 天主教의 性格과 관련하여-」, 『濟州島史研究』 創刊號, 濟州島史研究會, 1991.

14) 상세한 내용은 姜昌一, 위 글과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I)』, 천주교 제주교구, 1997.

그 여파로 1907년부터 시작된 개신교의 포교 역시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었다. 선교를 위해 맨 처음 들어왔던 이기풍 목사는 성내(城內) 장터에서 전도하다가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당하였고, 만나기만 하면 당장에 죽일 듯한 기세로 몰려온 무리들을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가는 곳마다 적대시하는 눈초리와 침식마저 거절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을 수없이 당하면서 선교하는 상황이었다. 제주도민들은 예수교를 전하는 이기풍 목사를 관가에 집단으로 몰려가서 고발하고 추방하려 했었으며, 관에서는 이들을 무마할 수밖에 없었다. 강문호와 문태선은 “이재수난으로 인하여 기독교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오해는 더욱 커졌고, 이 때의 감정이 크게 작용되어 후일 천주교뿐만 아니라 신교의 복음전도사업에 크게 지장을 가져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평가하면서 도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적하였다.¹⁵⁾

일제침략기 내내 제주도민들과 천주교 신부 및 신자들의 관계는 매우 미묘한 것이었다. 이재수난 당시 민란을 일으켰던 세력은 천주교를 제주에서 완전히 내쫓고 싶어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했다. 정부는 천주교의 선교의 자유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위임받은 지방 정부는 천주교에 대한 위협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었다.

1922년 『동아일보』에는 제주도내 새로 들어온 종교의 인구 중 천주교인은 2백명, 개신교인은 5백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보도가 실려 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새로운 신자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아주 적은 신도만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천주교는 선교의 일환으로 1909년 신성여학교를 설립했었지만, 1914년에 문을 닫고 말았으며, 그 이후 더 이상의 활발한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웠다.¹⁶⁾

15) 康文昊·文泰善(1978), 『濟州宣教70年史』, 大韓예수교長老會 濟州老會.

이와는 달리 제주도에 가장 널리 퍼져나간 종교는 仙道敎였다. 선도교라는 교단 명칭을 가지고 제주도에 들어온 것은 1914년 이후일 것이다.¹⁷⁾ 당시 선도교는 변해 가는 세태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갓과 도포 등의 전통 복장 사용을 고집하고, 기독교와 천주교 그리고 양인(洋人)은 배척하였으므로, 무속신앙을 갖고 있던 일반 농어민들과 천주교나 개신교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유림들이 많이 입교한 것으로 생각된다. 항일운동이 발생한 1918년까지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신자가 있었는지 정확한 자료는 볼 수 없다. 1922년에 제주도내 교인 수가 2만명이라는 신문 보도가 있는데,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천주교인 2백명, 개신교인 5백명이라는 통계 자료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신자를 모으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1922년 普天敎라는 이름으로 공개화된 다음 제주에도 眞正院을 설치하여 정식 포교를 진행하였으며 당시 신도가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한 것을 보면¹⁸⁾ 신자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늘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보천교의 내분이 심화되는 1926년 이후에는 크게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⁹⁾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증산교의 뿌리를 이으면서도 제주도민에 의

16) 양진건, 「제주도 최초 근대 여학교, 신성여학교 연구」, 『탐라문화』 第18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7.

17) 증산이 포교를 시작한지 9년만인 1909년 39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는데, 1914년이 되어서야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 증산의 부인인 高首婦를 교주로 하고, 차경석(車京石) 등이 중심이 되어 선도교(일명 太乙敎라)는 교명을 내걸고 포교를 시작하였다(李康五, 『韓國新興宗教總攬』, 韓國新興宗教研究所, 1992, 192쪽).

18) 全羅南道濟州島廳, 『未開의 寶庫 濟州島』, 1924, 74쪽.

19) 『조선불교』 제23호 1926. 3.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 제주 불교사 자료집』. 2002, 65쪽.

해 재창립된 無極大道敎라는 독자적인 종교가 생겨난다. 1930년대 후반은 이미 육지에서는 보천교가 내분으로 지리멸렬한 시기이며, 김형렬의 미륵불교를 비롯한 증산교 계통의 수십개의 분파들이 제각기 활동하지만 전체적인 교세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는 교단이 독자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과 거의 천여명에 가까운 신자를 확보했다는 사실에서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무극대도교는 선도교의 뿌리를 계승한 것이지만, 1936년에 제주 중문 대포리 출신 姜昇泰(또는 姜承河)가 독자적으로 시작한 신종교이다. 그는 1918년에 선도교 신자가 되었는데,²⁰⁾ 그는 1931년경부터 눈이 멀기 시작했지만, 보천교를 계속 믿어 정도령이 나타나면 눈도 다시 뜨게 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다. 기도 와 주술 수련을 계속하던 중 1936년 무극대도교를 만들어 스스로 교주가 되었다.

무극대도교는 반일적인 사상이 강한 반면 교도들에게 재산을 바치기를 강요하였다고 한다. 이는 민중들의 고통과 바램을 주술적인 방법으로 충족시켜 주면서 스스로를 살찌워 비대해지는 모습인데, 강승태가 말한 후천개벽의 세상, 즉 미래에 대한 희망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복음이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 선전에 속아넘어가 패가 망신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시간이 흐른 위에 무극대도교가 말했던 세상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확신한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극대도교가 민중을 속이는 거짓 종교에 다름 아니었다.

해방 이후 제주도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선도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대체로 무극대도교로부터 생겨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

20) 권인혁, 「宗教界의 抗日運動」, 『濟州抗日獨立運動史』, 濟州道. 1996, 151쪽.

다. 해방이 되고 나서 이들 종교는 사라졌다. 물론 그냥 사라진 것만은 아니다. 현재 추정하기에는 적어도 두 종류의 흐름 즉 水山敎와 檀君聖主敎 등의 형태로 계승되었다.

彌勒敎는 1938년부터 제주에 들어왔는데, 일본의 통치를 부정하고 장체 龍華世界가 실현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포교를 했다. 이들은 1942년 관음사 평대포교소 김석윤스님의 신도 梁鵬進·梁啓超·宋泰玉·李斗生·邊鎬燦·梁元河등이 미독교도로 독립군에 참여할 것을 모의하다 체포되면서 막을 내렸지만, 이들은 대체로 1918년의 선도교 전통을 이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보천교도들이 활동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찰의 승려 또는 신도로 위장한 채 미독교 활동에 참여하였다. 미독교는 무극대도교와는 달리 민중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요구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²¹⁾

III. 해방 이후 제주도의 종교 상황

해방 이후 제주도의 종교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먼저 현재 까지 나와 있는 통계를 보기로 하자. 종교통계는 제도종교, 그 중에서도 특히 거대종교를 중심으로 조사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 당국이 조사한 결과를 실어 놓은 종교 통계는 1960년 이후 계속 집계되었는데, 1980년을 끝으로 신자 통계가 중단되었다. 아마도 그동안의 종교 신자 통계가 각 종교 단체가 신고한 것을 그대로 실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그 때문에 그 이후

21) 조성윤,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도연구』 제22집, 제주학회, 2002. 12.

인 1981년부터는 교당수와 성직자수 만을 실었다.

<표 1> 제주도의 종교 인구

	1963		1973		1979		1995	
	신자수	%	신자수	%	신자수	%	신자수	%
전체인구	307,519		398,418	-	456,988	-	505,095	
종교인구	50,751	16.5	72,580	18.2	166,566	36.4	249,450	49.4
개신교	5,877	1.9	12,681	3.2	19,970	4.4	42,235	8.4
천주교	10,326	3.4	11,511	2.9	16,448	3.6	31,143	6.2
불교	29,046	9.4	36,480	9.2	121,574	26.6	169,672	33.6
천지 대안교	664	0.2						
동도교	3,633	1.2						
천리교	155	0.1			(1,911)			
유교	-						2,217	0.4
원불교	-						685	0.1
대종교	-						26	0.0
대순 진리회							742	0.1
천도교							218	0.0
수운교	1,205	0.4	3,728	5.1	4,585	1.0		
기타			8,180	11.3	3,979	0.9		

1973년과 1979년의 조사는 도당국이 종교 단체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통계이고, 1995년의 조사는 인구센서스 자료로서 각 가호를

방문해서 직접 질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 비교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조사 기법으로 볼 때 센서스 자료가 훨씬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제한된 자료이지만 이를 토대로 대략의 추세를 설명하자.

제주도의 종교인구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천주교, 개신교, 불교의 3대 종교의 신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세 종교 신자가 종교인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종래 당신앙을 중심으로 한 민간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그 위에 유교가 지배 종교의 자리를 차지하던 조선 시대로부터 한말 일제침략기를 거치면서 불과 반세기만에 종교 지형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전국 다른 지역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해방 이후 지역별 종교 분포의 변화를 보면, 급속히 신자가 증가한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기독교 인구가 전국적으로는 불교 신자보다 많지만, 제주에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 신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곧바로 무속의 뿌리가 강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제주도의 종교 지형이 전국적인 상황과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불교만 보더라도 다른 지역은 조계종이 비교적 우세한 형세인데, 제주지역만은 다르다. 조계종보다도 오히려 태고종이 훨씬 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있다. 물론 샤마니즘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주의 마을 할머니들은 대개 아침에 일어나면 당에 메를 올리고, 돌아와 집 정리를 한 다음에 차려 입고 절에 간다. 당신앙과 불교신앙이 별로 충돌을 빚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불교 신앙이 당신앙과 섞이면서 겉모습은 불교이되,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당 신앙의 핵심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일 수 있다. 스님들이 점사를 보는 일도 흔하

며, 救病施食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된다.

제주 지역사회에서 개신교는 1970, 80년대를 거쳐 착실하게 성장해 왔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정체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제주지역의 개신교회는 정체상태에 있다. 인구수 대비 신자 비율이 8%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개신교가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이상 신자수가 거의 늘지 않아 2000년 이후도 비슷한 수준이므로 정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교회당 수는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렇다면 교회가 증가한 것이 결코 신자를 늘려주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히려 한 교회가 새로 생기게 되면 다른 교회 신자들이 이 곳으로 옮겨오게 된다. 다른 종교 신자들이나 전혀 종교에 입문하지 않았던 새로운 신자가 개신교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교회의 신자였던 사람들 중에서 기존 교회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곳으로 옮겨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신자 이동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신자수가 정체상태라고 한다면 이는 상당한 정도의 신자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기존의 신자가 잘 나오지 않거나, 다른 교회로 옮겨가더라도 이미 자신의 교회 신자로 등록된 사람의 교인카드를 없애버리지 않으며, 그래도 교인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개신교보다는 오히려 천주교가 급성장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제주도의 천주교 신자수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전국적으로 볼 때 가장 빠른 증가율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그렇다면 천주교 급성장의 이유는 무엇인가. 깊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선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 보겠다.

첫째로 제사 허용이다. 개신교는 제사를 전적으로 금지하는데 비해서 천주교는 허용한다. 언제부터 천주교가 제사를 허용하게 되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복음화(선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생긴 변화인 듯하다.²²⁾ 말하자면 부모 조상에 대한 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생각을 통해 백년전 이재수난 당시 천주교가 보여주었던 강력한 조상숭배를 배척하던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러한 전통문화에 대한 유연한 해석은 많은 제주인들이 천주교로 입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허물어 주었으며, 조상 제사를 우상숭배로 보는 개신교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조적인 태도가 신자수의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개신교에 가족이 모두 입교했다가 친척들이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난하자 고민하다가 일년만에 가족이 모두 천주교로 옮긴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그 한 보기이다.

22) 문창우, 「1901년 천주교회와 제주전통사회의 충돌」,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 엮음, 『진실과 화해』, 도서출판 각, 2003, 186-188쪽.

<표 2> 제주도 천주교 신자의 변화 (단위:명,%)

연도	제 주 도 인 구	신자수	신 자 비 율
1981	467,876	16,783	3.6
1986	495,968	23,870	4.8
1991	521,802	32,501	6.2
1996	523,736	41,938	8.0
2000	534,715	52,468	9.8

출처: 『평협회보』, 천주교제주교구, 각년도

두 번째는 천주교회에서 葬禮에 관심을 쏟고, 그 절차를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조직화한 결과 많은 제주도민들이 천주교로 개종하고 있다.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가 하는 데 대한 관심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 실제 참여관찰 결과 천주교가 매우 조직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한다. 특히 노인들이 친구들 장례를 천주교식으로 치르는 것을 참석해서 보고는 ‘나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얼마나 작용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제주지역의 천주교는 지난 20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신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V. 제주도의 신종교와 민간신앙

제주의 신종교는 전반적으로는 전국적인 상황과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구수나 지역 규모가 아주 적는데 비해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신종교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 제주 출신의 교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종교 집단의 존재도 눈에 띈다. 천도교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대신 수운교 신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든지, 찬물교 교주가 제주도 우도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흩어져 형성한 여러 종파들, 이를테면 천지대안도, 삼천교 등의 교주가 모두 제주 출신이라는 점등이 그 보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주지역 신종교의 특성이 무속 신앙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연구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 신종교 중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제도화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와 민간신앙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아주 낮은 수준의 제도화만 이루어진 채 유지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외부로부터 들어온 신종교가 제주 지역에 정착한 것과 제주지역에서 새로운 신종교가 생겨난 경우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외부로부터 발생한 신종교가 제주에 들어와 정착한 다음, 그것이 제주의 무속과 얽혀서 혼합 현상을 일으킨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통사회에서는 외부와의 고리가 끊어진 채, 독자적인 종교 세계를 구축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신종교도 일단 제주 사회에 들어오면 그것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육지부의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단절된 채,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 신종교의 특성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장 먼저 제주도에 들어와 퍼져 나간 신종교는 증산교였다. 1910년대부터 퍼져나간 증산의 가르침은 먼저 태을교, 보천교로 이어지면서, 1930년대 후반에는 무극대도교로 변화하면서 많은 신자를 끌어들이었다. 이것은 증산의 가르침을 중심 뼈대로 하면서도 제주도의 민간신앙의 다양한 양태를 결합시킨 형태의 혼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해방 이후 대부분 약화 쇠퇴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종파는 명도암의 무극대도교와 광령리의 단군성주교 정도이며, 신자의 수도 적은 편이다. 반면 1970년대 이후 서울 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하여 급속히 성장한 대순진리회가 1980년대부터 포교를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신자를 늘려갔다. 특히 제주시 노형동에 건립한 제주수련도장은 서울본부의 수련도장, 경기도 여주의 수련도장과 함께 전국 교인이 함께 이용하는 대규모 건물이다. 그러나 제주수련도장을 순조롭게 지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서귀포시 하원동과 천지동에도 각각 대규모 수련도장을 지으려던 계획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이 반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순진리회의 가르침이 일제침략기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던 무극대도교와 교리가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무극대도교를 그냥 선도교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후천개벽의 교리를 내세워 혹세 무민하면서 신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는 사이비종교라고 규정하면서 대립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중앙 교단의 분열의 여파 때문에 제주도 내의 신자들도 분열된 상태이며, 신자수도 급속히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산도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가에서 주로 신자를 확보하고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신자는 많지 않다.

2) 해방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신종교는 찬물교 계통의 종파들이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은 윤유선의 타불교로서 치병의 소문을 듣고 모인 수천명의 신자를 거느릴 정도였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는 타불교는 약화되다가 삼법수도교화원으로 흡수되었다. 다음으로 널리 알려진 종파는 천치대안도인데, 본부가 계룡산 지역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주도에 가장 많은 신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분 때문에 활동력이 약해지면서, 교회수도 줄어들고 서서히 힘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면 처음부터 많지 않은 신자로 유지되던 삼법수도교화원은 수백명의 신자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²³⁾

3) 기독교계 신종교는 제주도에 내내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해방 이후에야 제주도에 들어오기 시작한 기독교계 신종교는 천부교(신앙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천부교는 전국적으로 교세를 확장시켜 가던 1960년대에는 제주에서도 1,500명 이상의 교세를 확보했었지만, 곧 몰락하여 지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통일교 역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조금씩 교세를 넓혀 나갔지만, 최근에는 다시 크게 약화되고 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는 애초부터 적은 인원을 유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결코 많은 신도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도는 민간신앙, 그 중에서도 무속 신앙의 내용이나 주민들이 심방(무당의 제주에서의 호칭)과 밀착된 정도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 우선 제주도의 민간신앙은 최근까지 지역민의 종교로서 그 생활세계를 지배해 왔고 현재에도 그 영향력의 범위가 아주 넓게 잔존

23) 조성윤, 「찬물교 연구 서설」, 『현대 한국의 종교와 사회-한국 사회사 연구회 논문집 제35집, 문학과지성사, 1991.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두드러지게 다르다.

우선 민간신앙행위가 지역 신앙민들에 의해 행해지는 堂의 존재이다. 총인구 54만 2천 명(2000년 현재)의 지역에 현재 348개의 당이 존재한다는 것부터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또한 마을신의 신화인 본풀이가 심방에 의해 巫歌로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또한 제주도 외의 지역에서는 찾기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연구자들이 채록한 제주도 서사무가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다. 진성기의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에 수록된 무가의 수만 해도 500여 편인데, 이렇듯 방대한 양의 무가가 근래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앙 내지 민간신앙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하나의 증거라 하겠다.²⁴⁾

제주도 전통 무당인 심방들이 오래 동안 각 마을의 당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을 신앙민으로 확보하고 있었는데,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당굿을 실시하는 마을이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심방수도 점차 줄어들고, 젊은 심방을 아예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신앙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탄압이 줄어들면서 무속신앙은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줄어들기만 하던 무당의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 전통 무당인 심방이 아닌 육지 무당들이 들어와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30여 년 전만 해도 몇 명 되지 않던 육지 무당이 지난 10여 년 간 대폭 늘어나 이제는 1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전국 각지로부터 들어오는데, 심방과는 달리, 흔히 여자는 ‘보살’, 남자는 ‘법사’라고 부르며, 또 자신들도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란다. 제주도 무당

24) 하순애, 「제주도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화상」, 조성윤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화』, 백산서당, 2003.

인 심방이 세습무라면 그들은 강신무로 분류할 수 있으며, 농촌으로 파고들기보다는 주로 도시 지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점집을 열고 손님을 받는다. 물론 점을 쳐주는데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점을 쳐주면서 손님들과 관계를 맺고, 손님들이 의뢰하는 곳을 한다.²⁵⁾

산업사회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한국사회에서는 농촌을 무대로 활동하던 심방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물론 중요한 곳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기능보유자를 중심으로 보존회를 구성하여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합예술로서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노력에 그칠 뿐이다. 반면 강신무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기술 문명에 적응하여 다양한 정보통신 수단을 매체로 적극 활용하면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무속신앙의 재활성화는 신앙민들이 신종교로 빠져들던 경향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심방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약화와 소멸이 제주인들의 전통적인 민간 신앙이 약화 내지는 파괴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적 산업사회 속에서 크게 바뀌고 있는 생활양식에 적응하는 새로운 종교 양식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촌 공동체 중심의 생활 양식이 깨지면서 각자 개별적으로 산업 구조 속에 편입되어 활동하는 개인들이 더 이상 생활의 장인 주거 지역에서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새로운 사회 환경이 가해오는 압박과 부딪치는 문제는 산적해 있는 상황이 된 것이며, 이에 따라 집단적 성격이 약화되면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바뀌

25) 조성윤, 「제주시의 무당과 역술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면서 개인의 운세를 알려는 점복이 증가하고, 굿도 개인 또는 가족을 위한 재수굿, 병굿, 천도굿이 증가하는 것이다

V. 맺는 말

제주도 종교문화의 밑바탕에는 이른바 1만8천신을 모신다는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신앙이 깔려 있다. 그 위에 제도 종교가 자리잡는데, 그 중에서도 불교가 가장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불교 중에서도 주민들의 종교 심성과 가깝고 민간신앙의 각종 의례를 적극 수용하는 태고종 계열의 사찰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주민들은 별다른 마찰 없이 불교로 편입되고 있는데, 당분간 조계종보다는 태고종이 계속 신도들을 확보하리라 예상된다. 한편 개신교와 천주교 중에서 개신교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천주교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 역시 민간신앙, 또는 제사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훨씬 높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도의 민간신앙의 뿌리는 근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서서히 약화되는 것으로 흔히 설명되어 왔지만, 최근의 경향은 약화, 소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근대사회의 제도적 틀 속에 융해되고, 때로는 새로운 옷을 입으며 재편성되면서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종교 문화는 불교, 천주교 등의 제도종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특징지어지지만, 그 밑바탕을 이루면서 흐르는 민간 신앙의 기반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1973		1979		1995	
	신자수	%	신자수	%	신자수	%
전체 인구	398,418	-	456,988	-	505,095	
종교 인구	72,580		166,566	36.4	249,450	49.4
개신교	12,681	3.2	19,970	4.4	42,235	8.4
천주교	11,511	2.9	16,448	3.6	31,143	6.2
불교	36,480	9.2	121,574	26.6	169,672	33.6
유교					2,217	0.4
원불교					685	0.1
대종교					26	0.0
대순진리회					742	0.1
천도교					218	0.0
수운교	3,728	5.1	4,585	1.0		
기타	8,180	11.3	3,979	0.9		